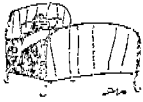


첫 병실 실습 인상기



연세대, 간호학과 2년

문 장 희

오늘은 처음 병실 실습을 나간 날이다. 단 두시간 동안의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서둘러서 긴장된 마음은 아직도 머리 속까지 뒹개 오는것 같다.

그저 단순히 방안에서만 생각하던 것과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다. 상급생들의 깨끗하고 섬세한 제복에서 아니 그것보다도 더 맑은 표정들 속에서 나는 미처 그 뒤에 숨은 어두운 사연들을 읽지 못했던 것에 나자신 우매함을 느끼면서 마음속의 평안치 못한 무거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아니 나는 혼자서만 부질없는 걱정으로 마음속을 흐리고 있는 것일가. 나는 아직 너무나 미숙하고 그들을 간호한다는 엄청난 생각때문에 나의 무능력 앞에 미리 겁 집어 먹고 기가 죽어 리렸는 것일가.

병실은 마치 죽음에 이르기 직전의 집합 장소 같이 느껴진다.

환자의 무겁고 깊은 한숨 소리에 놀려 나의 숨소리는 그만 그저 버린것 같았다.

처음 들어 왔으니까 인사불 해야 할텐데 실습실에서 배운대로,

“할머니 오늘은 제가 간호를 해 드리겠어요”하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북에서부터 나오려는 말이 입속에서 흐려져 버린듯 고개만 끄덕이셨다.

이 환자는 몹시 피로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다. 무슨 근심 걱정 고통으로 된 몽탕이가 긴 한숨속에서 새어 나오는것 같았다.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환자를 지루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만약 말을 시킨다면 ‘기운이 없어요, 제발 말을 시키지 말아요’ 할것 같아 나오는 간격이 먼것 같았다.

흰 머리를 길게 땀아 늘어 드린 할머니 한 분이 맞은편 침상에 옆드려서 어린애 처럼 흐느껴 울고 있는 모습이 자꾸자꾸 애처롭게 떠오른다.

이 할머니에게 어떤 무서운 열상이 떠 오른 것이었을까 꿈 해몽을 잘 하던 할머니가 무시무시한 꿈속에서 깨어난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저 널티 하느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 생전의 심판을 받고 쫓겨 나온 줄이라도 꾸셨는가.

이미 이루어져 버린 긴 세월을 통해서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싹박한 감정으로 뒤쪽 길에 서서 울며 서성대는 한 가련한 인간상이 떠올랐다.

이젠 내 앞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 돌아 가자. 울며 엎드린 머리 땅은 할머니를 돌끄러미 바라다 보고 췌셨다.

“할머니 돌아 누우세요, 등 다 칼해 드리겠어요”

실습실에서 선생님 하시던 말씀이 생각 났다.

“시원하시죠?” 하고 말했다.

할머니는 떼네 눈을 돌리고 있다가 “그래요”하고 두절계 대답하셨다.

“이렇게 등마찰 하면 피 순환이 잘 되어서 기분이 좋게 된답니다.

이런말은 할머니의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내 혼자 독백하듯이 웅얼거렸다.

물을 갈아야 할땐데 목욕 타올을 털어 드리고 나간다고 말을 해야지.

“할머니 바토 누우세요, 새물을 깔고 돌아 올테니까요”

막상 씻기고 있을 때는 물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했다. 그렇지만 더럽게 느껴지는 않았다. 그 할머니는 물이 편찮은 환자이고 나는 정정하게 건강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발을 씻어 드려야 할땐데 널적다리까지 옷을 걸어 올렸다.

아가는 “누워서 어떻게 목욕을 해? 하고 의아스럽게 물으시더니 이제는

“이물이 무슨 붙이요, 약물인가?”

이 할머니는 이 북욕물이 마치 생명수 같은 인상이 들으셨나 보다. 아베요, 맹물이에요, 하고 대답한다면 혹 생명수 같이 생각던 할머니께 실망을 드리는 셈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간호원은 정직해야 하는 것이지,

“아베요 보통 목욕하는 수도물이에요” 다행히 할머니는 실망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아까 흐느껴 우시던 머리 땅은 할머니가 어떤 전도 부인과 정답게 손목을 잡고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다. 여전히 구슬프고 애처로운 음성이었지만 음악은 슬퍼도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가 보다.

“어린 애기때 뿔속에 똥덩 다리틀 잠그고 북욕하던 생각이 들어”

노인이 되면 어린애와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할머니에게도 갑자기 애기 때 시절이 연상 되셨는가 보다.

단단스런 알몸도 빠져 버린 율령 율령한 다리틀 씻겨 드리는 똥인에 내게는 애기를 씻어 준다는 감상은 조금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는 맞장구를 쳐 드려야 할까 한참 침동스러웠던 마음은 갑자기 웃음이 나지 않았다.

이 할머니에게서 차츰 온기가 도는것 같이 느껴졌다. 내가 진작 웃음을 띄우며 아무 이야기라도 해드릴것을 공연히 마음을 조이고 엄숙한 표정으로 있었나보다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마 사람에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면 하나는 건강한 상태의 사람과 다른 하나는 병든 사람의 상태 그것일 것이다. 건강인은 환자의 바로 밑에 있는 단계 인지도 모른다. 환자는 생생한 건강인의 마음을 들여다 보고 다 알고 있지만 건강인은 환자의 마음을 이해 할 줄도 모르고 그의 고통의 크기를 재기에도 능력이 부족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 일게다. 나도 차츰 얼굴의 근육들이 부드러워 지는 것 같았다.

하얗지 못한 홀이불들을 표백했으면 좋을걸, 새것으로라도 갈아 드렸으면 완전히 깨끗했을 것을, 빨아 놓은 홀이불도 없고 그전 입던 잠옷도 그대로 입혀 드렸다. 수간호원은 오후에 갈아 드린다고 말하라고 했는데 정말 오후에 갈아 드렸는지 궁금하다.

할머니는 내 콧등에 땀방울이 송이송이 맺혀 있는 것을 보시고

“학생 수고 했어요 아주 고마워요”

나는 그저 웃어버리고 속으로 ‘아니오’하고 증얼거렸다.

환자를 편안 하도록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물건을 챙긴후 병실을 나왔다. 나는 아마 전망중이 심한가 보다. 꽃병이랑 물병을 갈아 주는 일을 깜빡 잊었다. 그리고 할머니께 완전히 인사를 하고 나와야 할것을——

꽃병에는 카베이손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아마 어머니날에 딸이나 아들이 사다드린 것인가 보다. 꽃잎이 하나 들 퇴색되어져 가고 있었다. 새로 떠 온 물을 보시고 한 컵 달라고 하셨다. 이제 무슨 말을 마저 하고 병실을 떠나야 할까, 아참 아까 장속에 사과가 많은 것을 보았지.

“할머니 이 사과 짭아 드릴까요?”

“아니, 하나 짭아 먹고 나가요”

나는 뭣 모르고 하나 짭아 달라는 부탁인줄 알고 엎드려서 장문을 열려다가 날더러 짭아 먹으라는 말인줄 그때야 깨닫고 소스타쳐 일어섰다.

그런 친절일랑은 아예 배플지도 말것을 할머니는 마치 내가 먹고나 싶어서 물어 본 것처럼 생각하고 제시지나 앓나 하는 생각에 절로 열감이 확끈 달아 올랐다.

할머니는 날더러 내일 또 오느냐고 물으셨다.

“아녜요 이 다음 화요일에 다시 오게 돼요” “그때면 퇴원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한 숨을 내쉬셨다.

“할머니 이제 가 보겠어요. 물조리 잘 하세요”

공연히 얼굴에 진땀이 흐르며 부끄러운 생각이 떠올랐다. 병실에서 내 뽀지 못했던 건 한숨이 내게도 흘러 나왔다.

뒤라 할까, 정말 풍당 발을 물에 잠기고 애기를 씻다 말고 나온 기분처럼 개운치 못한 감정이 마음속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침상을 정리하고 있을때 의사와 인턴 그리고 수간호원 여럿이 들어 오셨다. 그때 나는 웬지 얼굴이 확끈거리며 쟁피스런 감정을 억제 할 수가 없었다. 얼굴과 잔등에 진땀이 짙게 솟아 나오는것처럼 느껴졌다.

어쩐지 힘이 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달요 두장이랑 Spread를 한꺼번에 밀어 넣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이 잘 못 가르쳐 주셨군”

하고 갑자기 낮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려 왔다. 고개를 들고 소리난쪽을 보니 웬 뚱뚱하고 엄격한 모습의 한 간호원이 서 있었다. 의사가 나간 뒤까지도 내가 bed making 하는 것을 감찰하기 위해서 서 계셨는가 보다. 그리고는 몸소 다 풀어

제치고 다시 차메차테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주신것은 아니었는데 그런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지만 내게는 당황할때 건망증이 일어나는 증세가 있다.

수간호원이란 바로 그런일을 맡아 하고 실습 나온 학생들에게 무안을 주고 괴롭히는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망신을 당해 쟁피스렵기도 했지만 곁에 계셨던 선생님께 미안해서 그것이 더 나의 마음을 괴롭혔다.

선생님께 사과를 드려야 할텐데 그러나 필경 나는 이제부터 위선자가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요일 아침마다 의사나 인턴들이 들어 올때면 나는 버릇처럼 당연히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을 그때마다 “선생님 죄송해요”하고 참회할 해야 될테니까 그런일로 나의 마음에는 또 얼마나 괴로운 부담이 되겠는가.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는가 보다. 나의 좁은문이 이제야 열리고 있는데 아직은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아마 더 좁다란 길이 펼쳐 있는 모양이다.